

아까시나무, 우리 산림의 '백치 아다다'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Linn.)는 사람들이 흔히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나무이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아카시아가 열대-아열대지방에 살고, 우리나라에 심었던 아까시나무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 이창복 선생님께서 이와 구별하기 위해 아까시나무라고 하였다. 아까시나무의 속명은 아카시아의 속명인 *Acacia*와는 전혀 다른 *Robinia*로 1600년에 미국에서 이 나무를 도입한 파리의 원예가 진 로빈(Jean Robin)과 이를 유럽에 퍼뜨린 그의 아들 베스파시안 로빈(Vespasian Robin)을 기념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00년대 초에 경인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로 변에 심을 나무를 구하는 과정에서 들어 왔다. 그런데 세상의 소문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아까시나무를 들여왔다, 그리고 아까시나무가 우리 산림을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여 아까시나무를 우리 산림의 '백치 아다다'로 만들어 놓았다.

산림 복구에 도움 줘

아까시나무는 공과식물로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하며 공중 질소를 고정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과정에서 인산을 과도하게 흡수한다고 우려하나 인산도 매년 낙엽이 지면서 생태계 순환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못된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런 순환과정을 끊으면서 과도하게 착취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아까시나무는 예전에 민둥산으로 험벗었던 우리 산림에 유기물이 없어 식물이 정착하기 어려웠던 조건을 극복하고 식생을 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나무이다. 미국에서도 루스벨트 대통

령 시절 테네시 강 유역의 황무지에 아까시나무를 조림하였다. 특히 헝가리에서는 너른 모래땅에 대대적인 조림을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미래를 내다보고 육종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질소고정 특성 이외에도 우리 산림 복구에 도움이 되었던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연료로서 인기도 좋았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아까시나무는 작은 가지라도 화력이 세었고 약간 젖어도 잘 탔었다. 그 당시에는 석유나 가스가 활용되기 전이고 연탄도 사기 어려워 땀값을 산에서 채취하였다. 과도한 채취로 산림 복구에 어려움이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아까시나무를 심어 연료림으로 쓰게 하고 다른 산림은 보호하게 하였다.

또한 아까시나무는 잘 썩지 않아 철도 침목으로도 쓰였고 특히 땅속에서는 참나무보다 더 오래 가서 말뚝으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더구나 공잎, 팔잎마저 사람이 먹던 시절, 나뭇잎 치고는 아까시나무 잎이 단백질이 많아 사료로서 인기도 좋았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 특별활동으로 토끼를 키웠는데 이들이 유난히 그 잎을 좋아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이렇게 용도가 많은 아까시나무는 자신이 훼손되면서 다른 나무를 지켜 내는 착한 나무였다.

아까시나무의 수난사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까시나무를 원수처럼 다루었다. 아까시나무가 일본 강점기에 퍼져 반일감정이 투영된 데다가 산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성가신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시나무는 가만히 두면 한 줄기만 자라 처리하기 쉽지만 잘라내면 더 왕성하게 움이 돌아 매우 성가시게 된다. 더구나 뿌리가 뻗어 없던 곳에서도 움이 생겨난다. 그러니 산소를 벌초하는



글 신준환
국립수목원장
kecology@forest.go.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산림보전부장 등을 지냈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쁜 나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고생담들이 인구에 회자되니 사람들은 왕성한 생명력 때문에 아까시나무가 다른 나무를 다 죽이고 산림을 훼손시킨다고 오해하게 되고, 천하에 못된 나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시나무를 죽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 당시 아까시나무를 죽이는 방법을 소개한 것을 보자. “줄기를 모조리 잘라주면 어린 새 가지가 돌아온다. 이 가지를 20~30cm의 길이로 남겨놓고 잘라버린 뒤 이 가지를 휘어서 끝쪽을 약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에 잠기도록 해 둔다. 약물이란 황산동액 또는 석유, 그 밖에 나무를 죽이는 약(살목제(殺木劑))을 물에 탄 것이다.”



▶ 1 아까시나무 황화현상 2 아까시나무 꼭대기가 말라 죽었다.

최근에는 아까시나무가 자연히 죽고 있다. 그래서 조사하러 숲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는지 거의 모든 나무에 상처가 나 있다. 여기에 황화현상, 해충, 이상기온, 토양 산성화, 다른 나무와의 경쟁 등이 겹쳐서 죽어가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아까시나무 숲이 다 죽어가거나 꼭대기가 말라죽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억척스럽게 일한 아까시나무가 우리 산림이 잘 된 지금 하소연도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아까시나무는 왕성한 생명력과 가시 때문에 다른 나무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나무가 들어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훼손된 땅에 먼저 들어오는 선구수종이라 처음에는 왕성하게 자라지만, 나중에는 다른 나무에게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이런 과정은 활엽수가 무성한 곳에 아까시나무가 침입하지 못하고, 아까시나무숲에 일반 활엽수가 침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까시나무가 산림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숲에 만든 상처를 아물게 했는데, 새살이 돌아나면 사라질 운명이다.

알고 보면 사랑스런 나무

아까시나무의 꽃말은 우정, 비밀스런 사랑이다. 부모나 남편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백치 아다다만의 비밀스런 사랑이 있었다. 아다다는 아까시나무와 같이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실패하고 시집을 간다. 이런 아다다를 통해 시집에서는 어렵던 살림을 키웠다. 우리는 외국에서 도입한

아까시나무를 통해 험벗은 산림을 복구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아다다나 아까시나무나 상황이 나아지자 미운털이 박히고 폭력에 죽어간다. 아다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욕심을 버려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비밀을 알지만 세상은 욕심의 바다이다. 아까시나무는 흰 꽃을 피우며 세상에 가장 좋은 꿀을 주지만, 세상에서는 아까시나무를 키우기는커녕 확대하면서도 양봉가들은 꿀을 딸 나무가 없다고 투정하였다.

사실 아까시나무의 꽃은 특별하다.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초여름에는 아까시나무 말고도 산딸나무, 밤나무, 으아리, 고광나무, 노각나무 등이 모두 흰 꽃을 피워 초록 속에서 곤충이 꽃을 찾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초여름

에 피는 아까시나무의 꽃은 세월이 간다는 신호가 된다. 군인들에게는 제대가 소원인데 과거 군대에서는 병장이 신병에게 제대 날을 물을 때면 아까시꽃이 몇 번 피어야 제대하느냐고 묻곤 하였다. 신병은 “아까시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지고”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병장은 “나 같으면 죽겠다. 나는 다음 아까시꽃이 피면 제대다.”라고 빼긴다. 하지만 곧 신병의 마음을 짐작한 병장은 남은 세월을 보지 말고 지나온 세월을 보라고 충고한다. 갈 길을 보고 낙담하지 말고 온 길을 보면 오고 있는 사람보다 행복할 것이라며 나름의 삶의 지혜를 준다. 그 당시 병장의 학력을 생각할 때 이것은 세월이 여겨준 지혜일 것이다.

아까시꽃은 산림공무원들에게도 지긋지긋한 산불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신호가 된다. 그런데 작년에도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아까시꽃이 피었기에 페이스북에 산림공무원들 산불 걱정 덜겠네 했다가 바로 산불 소식이 들어와서 무척 부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요즘 같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미래를 예측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한다는 말을 되새기게 하였다.

최근에 산림청과 양봉가들이 힘을 합쳐 아까시나무림을 만들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워드에서도 아까시나무는 맞춤법에 틀리고 아카시아가 맞는 것으로 나온다. 아다다도 확실이라는 정식 이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아다다만 기억했는데 끝까지 아까시나무는 아다다와 닮았다. 아까시나무와 우리의 비밀스런 사랑은 어디로 가야할까? 온 산을 뒤덮은 아까시나무는 징그럽겠지만 길가에 하늘거리는 아까시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